

DELPHI

VERITAS VINCIT OMNIA

Let's Go Gambling

예측시장부터 무기한 선물까지,
왜 사람들이 위험한 도박에
열광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게임을 종료하고
싶습니다

카지노에 매여 있는 갬블러의
비통한 수기

CASINO ECONOMY

카지노 이코노미와 질서의 붕괴 : 카지노 이코노미란
무엇이며, 왜 사람들은 스스로를 카지노로 몰아넣고
있는가

CONTENTS

05

신영서 Delphi Editor

카지노 이코노미와 질서의 붕괴

사람들은 더 이상 일을 하기 보다는 카지노에 앉아 리스크를 짊어지려 하는 것을 더 즐기고 있다. 대체 왜 사람들은 스스로를 카지노로 몰아넣고 있는 것일까

07

Blockchain Valley

Let's Go Gambling!

میم코인과 무기한 선물거래부터 예측시장까지. 점점 더 web3 업계는 카지노로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저들과 빌더, 그리고 리서처들은 각자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09

박주혁 Arch network

게임을 종료하고 싶습니다

결코 끝나지 않고 무한히 돌아가는 카지노 이코노미의 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씁쓸한 이야기

10

Contributor

질문들

현대 사회에서 누군가는 던져야 하는 질문에 대한 각 필진들의 대답

카지노 이코노미와 질서의 붕괴



“사람들은 이제 노동보다 카지노 테이블에 앉아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을 더 즐기고 있다.”

2025년, '카지노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이는 경제 주체들이 점점 더 과감한 베팅을 하며, 더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자산 배분을 선호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미국의 젊은 남성 절반이 온라인 스포츠 베팅 계정을 보유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베팅에 뛰어들고 있다. 2024년 밍코인 열풍에 이어 2025년 주식 시장의 광풍까지, 사람들은 이제 노동보다 카지노 테이블에 앉아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을 더 즐기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카지노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로빈후드는 옵션 거래 앱을 통해 사람들에게 점점 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추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폴리마켓과 칼시 같은 예측 시장은 스포츠 베팅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무기한 선물 거래를 허용했고, 한국 역시 토스에서 해외주식 옵션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

비단 금융 분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틱톡에서는 '랜덤박스'라는 명목하에 쇼핑과 도박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 변화가에는 진입장벽을 낮춘 슬롯머신인 인형 뽑기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핀테크 업체 coverd는 마치 게임처럼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했다. 전 세계가 도박이라는 거대한 열풍에 휩쓸리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카지노 이코노미는 단순히 도박과 유사한 상품이 늘어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사람들이 스스로 도박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역으로 이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세계 자체를 일종의 카지노 티켓을 들고 자유를 사는 거대한 카지노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젊은 세대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을까. 가장 쉬운 대답은 역시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자산 폭등 때문이다. 노동소득을 뛰어넘는 자본소득의 상승을 이미 목격한 청년 세대에게 리스케이킹은 이제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가만히 앉아 모든 것을 잃을 바에야, 리스크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더욱 복잡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기존의 방식'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기업에 취직해서 가정을 꾸리고 집을 사는 중산층의 전형적인 루트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달리는 타락했고 일자리는 없으며 대학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집값은 하늘을 뚫는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가운데,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뿐이다. 더 좁아진 관문을 뚫기 위해 지옥같이 자신을 단련하거나, 혹은 아예 무한한 리스크를 짊어진 채 희박한 가능성에 도전하거나.

지금 청년 세대는 역대 가장 술을 적게 마시고, 담배를 적게 피우며, 가장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세대인 동시에, 가장 도박에 미쳐 있고, 포르노에 노출되어 있으며, 숏폼에 중독되어 있는 세대이다. 이는 얼핏 모순되어 보이지만, 실상은 같은 본질에서 나온 다른 결과물이다. 기존의 방식이 무너진 가운데에서, 그 좁은 관문을 뚫기 위해 무한한 리스크를 짊어지거나 무한한 노력을 해내기 위한 청년들의 사투이다.



더 좁아진 관문을 뚫기 위해 지옥같이 자신을 단련하거나, 혹은 아예 **무한한 리스크를 짊어진 채 희박한 가능성에 도전**하거나.

Tw

예측시장과 퍼펙텍스에 대해 이야기하면 일견 굉장히 나쁜 말들이 흘러들어온다. "온라인 도박", "카지노 이코노미".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반박할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청년 세대들은 이토록 도박에 열광하는 걸까? 흥미로운 점은, 청년 세대들은 전통적인 도박 -경마, 복권, 슬롯머신- 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청년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는 도박은 조금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다. 주식, 코인, 예측 시장까지, 전통적인 도박과는 결이 조금 다른 도박이다. 자기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에 점점 자본이 몰리고 있다.

재밌는 점은, 저러한 판단은 원래는 직장 and 인간 관계에서 했던 것이다. 원래 대로라면 우리는 노동 시장에서, 연애 시장에서, 각자 스스로의 판단을 앞세워 움직여야 했다. 그러나 지금, 청년 실업이 미친듯이 치솟고 연애틈는 떨어져만 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쓸 수 있는 건 도박 밖에 없다. 그나마 이 세상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도박 밖에 없다면, 더 이상 우리가 이걸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Let's Go Gambling!

카지노 이코노미라는 말은 사실 낯선 단어가 아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버킷샵 때도, 닷컴 버블 때도 들렸던 말이다. 그러나 현재의 카지노는 접근성이라는 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그 때와 달리 지금은 모두의 손안에 카지노가 있다. 고레버리지 상품이나 밈코인 같은 금융 상품은 이제는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다.

카지노의 물리적 거리만큼, 정서적 거리도 가까워졌다. 인터넷 커뮤니티, 트위터, 쓰레드,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들을 보다보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소셜 미디어가 조장하는 착각에 불과하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보여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권을 팔려는 수작이다.

현재 손 안의 카지노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권 당첨된 사람들을 보며 자신도 당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는 나름의 분석과 조사를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지하철에서 업비트 화면을 들여다보고 게시는 어르신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는 최근 유행한 인형 뽑기 붐과 같다. 인형뽑기 기계가 조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기술'로 뽑을 수 있다는 착각은 고갱이 끊임없이 기계에 돈을 넣도록 만든다. 카지노는 본래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과연 이런 경제에서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

T-male

예측시장은 단순한 토토나 도박 게임이 아니다. 정치와 스포츠 같은 현실의 사건 그리고 인터넷에서 형성되는 여론을 하나로 잇는 통로로 작동한다. 사람들은 단순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고 믿는 주제에 돈을 걸며 관심을 드러낸다.

예컨대, 특정 정치인의 비리 의혹이 나왔을 때 대중들은 기사나 댓글보다 "예측 확률이 얼마나 움직였는지"로 해당 이슈를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다. "어떤 이슈가 중요한가"를 정하는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전 언론이 결정한 이슈를 대중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민주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언론은 조회수 같은 지표에 맞춰 제목을 써내려간다. 반면 예측시장은 거래량과 확률로 그 관심을 보여준다. 이 차이는 언론에 새로운 압력을 만들 수 있다. 앞으로 언론은 자신의 자체적인 판단이 아닌, 예측 시장에서의 사람들의 움직임을 기초로 취재의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다. 앞으로 언론의 신뢰는 무엇으로 결정될까? 클릭을 부르는 해석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돈을 걸어 만든 확률일까. 이미 예측시장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다.

Willy

Let's Go Gambling!

불과 10~20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주식투자'는 패가망신의 지름길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다고 여겨지고 있다. 기성세대의 문법으로는 도달 불가능한 부(富)를 얻기 위해, 젊은 세대는 카지노 앞을 서성이고 있다. 이는 단순 탐욕이 아닌, 생존과 계층 이동을 위한 절규의 표현이다.

그러나 어쩌서인지 이러한 미래를 먼저 접하고 있는 크립토 커뮤니티는 기회를 접하기도 전에 소멸할 것만 같다. 동질감을 느끼고 연대해야 할 이들이, 오히려 제한된 파이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비난하고 죽이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마치 흑인 커뮤니티가 거리의 이권을 두고 파벌을 나누고 총격전을 벌이며 궁극적으로는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되었던 듯이, 크립토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단기적 이익을 위해 이 판을 생존을 위한 결투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멸을 향해 치닫는 이 제로섬 게임이 계속된다면, 혁신을 외치던 크립토 커뮤니티는 결국 디지털 후드(Digital Hood)'로 남아 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태초의 순수한 사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보이다. 앞으로 올 거대한 기회를 눈앞에 두고 우리끼리 출혈 경쟁을 할 필요는 없다. 단지, 자극적인 단기 수익을 취하고 나가는 '선수'로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카지노 밖의 인프라까지, 즉 그 상품을 둘러싼 인프라와 규칙 자체를 재정의해야 한다. 크립토는 단순한 베팅의 수단이 아닌, 어쩌면 황량한 카지노와 그 주변을 새로운 대도시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Jermaine Chong

게임을 종료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하우스가 항상 이기는데 **내가 왜 노력**해야지?”



박주혁 Arch Network

싱가포르에서 열린 토큰2049 덕에 처음으로 카지노에 가봤다. 마리나 베이 샌즈, 일명 MBS라고 불리는 공간을 거닐며 상점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이 핸드백은 누구의 월급인데.” 그곳에서 우리는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에 시간을 보낼 곳으로 향했다. 이번 출장 비행기 값을 벌여보자고 결심하며 길게 늘어진 줄의 끝에 안착했다.

안에는 아무런 음악 소리도 없었다. 탄식이나 고통도 들리지 않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효과음과 얇은 담배 냄새만이 존재했다. 우리는 크랩스 게임을 하러 갔다. 판돈이 올라갈수록 테이블 주위의 군중이 커졌다. 주사위는 더 빠르게 굴러갔다. 은퇴 자금으로 게임을 즐기는 듯한 긴 백발의 미국인 신사는 이들의 존재를 불쾌해했다.

온 김에 슬롯머신을 구경해 보고 싶었다. 형형색색 빛을 발하는 기계 복도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간혹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는 눈빛들을 훑어봤다.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컴퓨터가 정해준 확률에 기대어 일확천금을 꿈꾸는 걸까?” 나는 물을 수밖에 없었다.

문득 카지노는 하우스가 이기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냈다. 하우스가 이겨서 번 돈은 어디로 향할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쓰인다. 더 많은 토지를 매수하고, 더 큰 호텔을 짓고, 더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꾸미는 데 쓰인다. 슬롯머신 앞에 앉은 모든 사람은 새롭게 지어지는 아름다운 공간들이 지어지는 데 기여하지만 절대로 그 공간들을 보유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때 깨달았다. 어차피 하우스가 항상 이기는데 내가 왜 노력해야지?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인데 알고리즘으로 정해지는 승률에 기대는 게 무슨 죄지?

어느 때부터인가 하루 일과는 WLF1 분할 매수로 시작하게 되었다.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 하는 회사인데 언젠가는 올려줄 거잖아?

승률을 조금 높여보자. 소셜 트레이딩 앱에서 찾은 카발 지갑을 따라 총희석가치 8천만 원짜리 밈 코인까지 샀다. 100배만 가면 인생 역전이다. 눈을 감았다 뜨니 핸드폰이 손에 쥐어져 있다. 꼬물거리는 차트가 그새 지겨워졌나 보다. 반나체의 여자들이 해변에서 춤추는 동영상을 400번쯤 넘긴 것 같다. 이 중에 몇 개나 AI로 만들어졌을까? 잠에 들기 전에 자기계발을 위해 경제 유튜브를 들으며 눈을 감는다.

올해 블랙프라이데이는 전년에 비해 매출이 9% 늘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배웠다. 물건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당연히 경제가 좋지 않다고 떠드는 유튜브 학자들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뭔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한다. 드디어 4K 60인치 TV와 유니클로에서 같은 색상의 스웨터를 3벌이나 20% 할인된 가격에 샀는데, 어째서? 좌우지간 BNPL 덕에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잠들기 싫다. 내일 아침이면 빌어먹을 회사에 가야 한다. 하지만 관둘 수는 없다. 여길 떠난다면 난 갈 곳이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 회사도 미래는 없다. 아니, 이 회사에 다니는 나에게 미래가 없다. 한 달에 300만 원? 누구 입에 풀칠하라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여기서 10년 일한 부장도 나보다 겨우 두 배도 못 번다. 이래서 집은 살 수 있을까? 요즘 서울에 아파트 없으면 결혼도 못 한다는데.

현재 시각 오전 02:43, X에 500배 익절 인증 글이 올라왔다. 이것도 인사이더겠지. 운이 어땠어. 나도 더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해낼 수 있겠지? 얼른 챗바퀴 같은 지겨운 팔자 좀 고치고 싶다.

Dialouge

질문, 혹은 대화들

**Q : 예측시장과 도박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T-Male

예측과 도박은 의미의 유무로 구분된다. 게임 룰에 제한된 의미만 보여주는 도박과 달리 예측시장은 여론을 보여준다.

Twi

예측 시장과 도박의 본질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가 100달러짜리 가방이 샤넬 브랜드를 입고 10만 달러가 되듯이, 예측시장은 도박을 중독자들의 막장 놀이에서 트레이더들의 마인드 게임으로 바꾸었다.

Willy

도박의 범위를 좁혔다는 가정하에 도박은 과정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예측시장은 기회의 공정성을 추구한다.

Jermaine Chong

도박은 개인의 운과 이득에 집중되어 타인의 관여가 배제되지만, 예측시장의 가격은 다수의 집단적인 믿음이 응축되어 형성된 결과이다. 이러한 과정을 관찰하고 참여하는 행위는 개인의 1인칭에서 벗어나, 다수의 판단에 입각하여 사고하도록 유도한다.

**Q : 앞으로 점점 더 카지노
이코노미는 강화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T-Male

카지노 이코노미는 인간의 본성이다. 지금까지 그 본성은 억눌려져왔고, 드디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아레나가 마련된 것이다.

Twi

강화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카지노 이코노미가 본질적으로 "빵과 서커스"와 결이 같기 때문이다. 양극화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아무도 하지 않기에, 결국엔 다들 빵과 서커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Willy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도파민 넘치는 자유로운 카지노가 아닌, 규제와 기득권층의 손길이 닿는 그런 카지노가 자리잡을 것이다.

Jermaine Chong

강화될 것이다. 현대 사회의 계층 이동 사다리는 카지노 이코노미 혹은 스타트업 엑싯 말고는 없어 보인다.